

국내 주식 투자전략

어닝시즌, 출발이 좋다

실적, Technical, 수급 모두 우호적인 상황

- 전일 KOSPI는 미국 증시의 반등과 삼성전자의 2/4분기 어닝서프라이즈에 힘입어 지난 6일의 급락세를 상당부분 만회하는 모습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양호한 실적이 같은 전기전자업종에 속한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LG전자, 삼성SDI 등 시가총액 5조원 이상의 대형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7월 중순 이후 본격화될 2/4분기 어닝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2/4분기 이후 KOSPI의 의미 있는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 중기 추세선(120일선)의 지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한편, 수급 측면에서 지난 6일 외국인의 대규모 현선물 동시 순매도가 부담을 주고 있지만 이 또한 방향성을 예단하기 이르다는 판단이다. 6일 외국인은 현선물시장에서 총 1.99조원(현물 4,277억원, 선물 12,863계약)의 동시 순매도를 기록했는데, 2000년 이후 다섯 번째로 큰 규모이다. 2000년 이후 매도규모 순으로 열 번의 경우를 조사해 본 결과, 대규모 순매도를 보였던 당일의 KOSPI 수익률(평균 -1.36%)은 대체로 약세를 보인 반면, 이후 10일간의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경우도 44.4%에 달하고 있다. 당사 리서치센터에서도 전일 미결제약정 변화가 미미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하락 베팅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7월 7일자 파생데일리 '외국인 대규모 선물매도의 배경' 참조).



KOSPI 중장기 추세선(120, 200MA) 지지 성공



자료: QV,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2000년 이후 외국인 현선물 동시 순매도 규모 상위

일자	순매도금액 (조원)	KOSPI 수익률(%)	
		당일	이후 10일간
2010-01-22	2.79	-2.19	-6.96
2011-03-10	2.53	-0.99	2.79
2012-06-22	2.30	-2.21	0.59
2007-11-08	2.10	-3.11	-9.12
2016-07-06	1.99	-1.85	?
2008-07-11	1.95	1.96	1.94
2013-01-08	1.91	-0.66	-0.07
2014-06-13	1.90	-1.03	-0.12
2013-05-10	1.81	-1.75	1.81
2011-01-21	1.80	-1.74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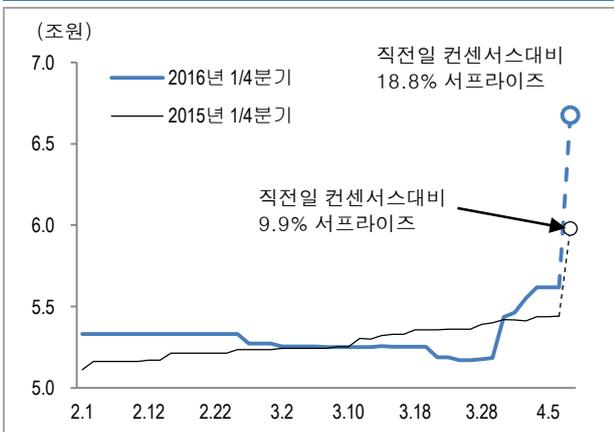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올해 어닝시즌의 대장, 삼성전자

삼성전자 2/4분기에도 어닝서프라이즈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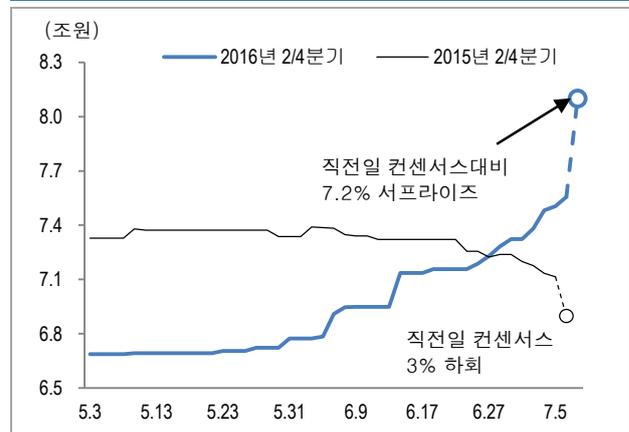
- 전일 2/4분기 어닝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가 있었다. 삼성전자의 2/4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 증가한 50조원(컨센서스대비 -2%)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8.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4%, 전기대비 21.3%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지난 1/4분기 잠정실적 발표 당시 컨센서스가 6조원 내외에서 7월 초 7.6조원까지 상향조정되었지만, 이마저도 7.2% 넘어선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 당사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4분기 부문별 영업이익은 반도체 2.6조원, IM부문 4.3조원, 디스플레이 0.14조원, 가전 1.1조원으로 갤럭시 S7 등 스마트폰과 TV 등 가전부문의 호조세가 실적개선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반기에 스마트폰 실적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반도체(3D NAND) 및 OLED를 주축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특히, 금번 삼성전자의 실적은 지난해 2/4분기와 비교할 때 시장 전체적으로도 함축된 의미가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4분기 예상치를 9.9% 상회한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이에 주가 또한 연초 이후 1/4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 시점까지 약 10.2%의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2/4분기는 양상이 달랐다. 2/4분기에는 예상치를 3% 하회한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주가 또한 3/4분기 중반까지 약세를 보인 바 있다. 반면, 올해에는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큰 폭의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추가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삼성전자 1/4분기 영업이익 비교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지난해와 올해 삼성전자 2/4분기 영업이익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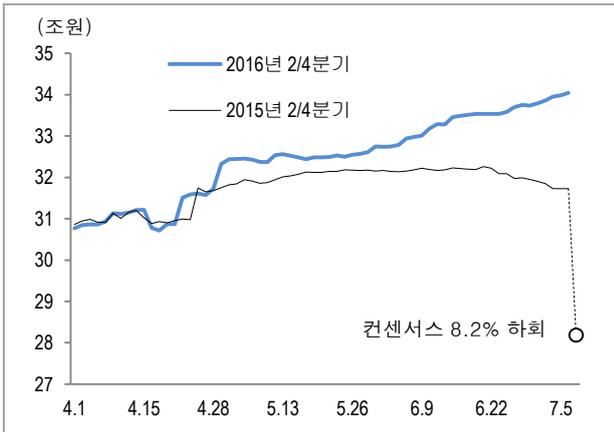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시장 전체적으로도 실적 기대감 상존

- 삼성전자의 실적이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인은 바로 이익규모 때문이다. KOSPI200 기업들의 올해 2/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8%에 달한다. 지난해 1/4분기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약 9.9% 상회한 가운데 KOSPI200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를 3.2% 상회했다. 반면, 2/4분기에는 삼성전자와 동반해 KOSPI200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8.2% 하회하면서 이익개선 기대감이 크게 위축된 것은 물론 KOSPI의 중기적인 약세를 경험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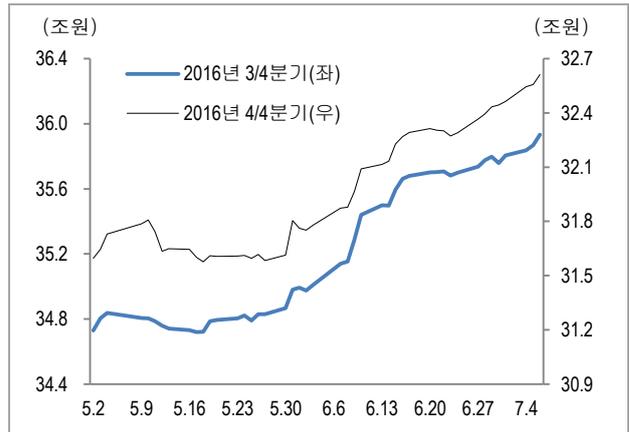
- 올해는 일단 2/4분기 어닝시즌의 시작이 나쁘지 않다. 삼성전자가 예상을 크게 상회한 2/4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경험적인 측면에서 KOSPI200 기업들의 이익기대감도 동반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반기 이익 추정치도 꾸준히 상향조정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어닝시즌을 거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향조정 가능성도 높다는 판단이다. 이미 여러 차례 국내 주식 투자전략을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섹터(반도체, 하드웨어)와 에너지, 화학 등 소재섹터, 화장품 등 생활용품업종과 같이 6월 중순 이후 2/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업종 중심의 시장대응이 유효해 보이는 시점이다.

지난해와 올해 KOSPI200기업 2/4분기 영업이익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KOSPI200기업 3/4분기, 4/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